

# 학교·식당·거리 적막강산... “나도 증상 있다” 문의 폭주

### 환자 거주마을 통째 격리... 입구서 24시간 출입자 제한

### 보성 학교 12곳 휴교... 방문 예정 4개교는 수학여행 취소

11일 찾은 보성 지역은 적막감이 가득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나다니는 주민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거리는 쓸쓸했다. 하늘엔 먹구름이 가득했다.

어쩌다 마주친 주민들은 모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꺼렸고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 운동장과

건물은 고요했다. 식당이나 마트에서도 “손님이 거의 없다”며 허를 내뉘었다.

보성을 한 상인은 “음성”이니 안심하라는 말을 들은 지 얼마 안돼 느닷없이 확진 판정이 내려졌더니 불안하지 않겠느냐”면서 “증상이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더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직장 건물 앞에는 ‘임시휴업’이라는 글이 붙었다. A씨 직장동료 13명이 밀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되면서다. A씨 직장이 보성을 금음 업무도 취급하면서 지역민들의 불편도 불가피해진 형편이다.

확진 환자가 거주했던 마을은 ‘통째로’ 격리됐다. 마을로 통하는 도로 2곳에는 경찰과 보성군 직원들이 24시간 대기하며 출입자를 제한했다. 하루종일 자택에서 머무르던 주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마을에 사는 17가구 32명은 대부분 농

업에 종사하는데, 한창 바쁜 농번기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농사를 망치는 것 아니냐”며 허소연했다.

한 마을 주민은 “농사 일에는 손을 못낼 정도로 걱정이 태산”이라며 “보건소나 군청은 언제까지 마을을 통제하는지 자세한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주요 관광지도 예약 취소 등 불황이 튀었다.

보성 주요관광지인 녹차밭의 경우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고 갑작스럽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보성녹차밭 관계자는 “메르스 여파로 6월 수학여행 때 오겠다며 예약했던 4개 학교(400여명)가 모두 예약을 취소했다”면서 “매년 이맘때면 하루에만 10대 가까이 관광버스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1곳 여행사에서만 찾았다”고 했다.

보성읍내에 있는 12개 학교(유치원 2곳·초등학교 6곳·중학교 2곳·고등학교 2곳)도 전부 휴업에 들어갔다. 보성중학교가 이날 하루, 보성초, 미력초 등 나머지 11개 학교는 12일까지 이틀간 휴업에

들어갔다. 접촉자가 많다는 사실이 전해진 뒤 보성군에는 ‘나도 증상이 있는 것 같다’는 등의 문의전화도 폭주했고 ‘메르스 검사’를 받아보겠다며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보성보건소 관계자는 “확진자와 같은 성당에서 미사를 봤던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문의전화나 메르스 검사 요청을 해온다”며 “오늘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해달라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성=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확인 또 확인** 11일 오후 보성보건소 직원들이 전남지역 첫 메르스 확진자의 자택을 방문, 가족을 상대로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증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보건소는 하루 2차례 A씨 가족 등 32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격리된 마을을 찾아가 메르스 증세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확진환자 다녀간 여수·순천도 ‘발각’

### 市, 결혼식 참석 125명 역학조사... 순천지청 직원 4명 자가격리

보성에서 발생한 메르스 전남 첫 확진환자 A(64)씨가 여수의 한 결혼식장에 다녀간 것으로 드러나 여수시가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주말엔 여수시청은 11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지난 6일 여수시 친척 결혼식에 참석해 125명의 하객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접촉자 명단을 확보해 1대1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 전체에 대해 전화 상담을 하고, 밀접 접촉자 23명 가운데 우선 혼주 가족과 여수시 거주자 등 18명에 대해 심야 역학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메르스 의심 증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객 거주지가 전남도내 6개 시·군, 도외 6개 시·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질환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지난 5월 27일 서울삼성병원에서 5시간가량 머무르면서 확진판정을 받은 14년 환자와 접촉 후 보성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일상적

으로 생활하다가 6일 자가용으로 여수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6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수 해당 예정장소를 방문한 시민에게 여수시 보건소(061-659-4247~9) 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A씨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소환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순천지청은 A씨와 직접 접촉한 검사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A씨 동선을 중심으로 사무실 등에 대한 방역을 벌이는 등 메르스 차단에 나섰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 광주 문화행사 차질 일 쌓인 들판... 일당 두배 쥐도 일손 못구해

### 문화재단, 미루거나 취소

### 봉사단체 지원까지 ‘뚝’... 8만원 일당 15만원으로 올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광주문화재단의 일부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3일 예정됐던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퓨전국악 해화실내악단의 ‘Arari(아라리요)-Aria&民謠’와 20일 무형문화재 초청 기획공연 ‘이산 갑남종 판소리고법과 박동실제 심정기의 만남’, 21일 ‘윤립동 모태 보태장타’ 등의 개최를 연기했다.

또 17~21일 서울 대학로 눈빛극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연극 애꾸눈광대의 서울 공연은 무기한 연기했으며 6월 중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 대관 행사 2건도 취소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농촌 지역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메르스 여파로 인한 불안함까지 더해지면서 농번기철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처음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보성 지역의 경우 본격적인 농번기철임에도, 광주 등 외지에서 오는 ‘일당 일손’도 외면해 영농 자질이 우려되는 형편이다.

11일 보성군에 따르면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농번기철에 맞춰 ‘농촌 일손돕기’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이달 지원 인력이 뚝 끊겼다.

보성군은 지난달의 경우 봉사단체 30명을 비롯한 140명이 농가 5곳(면적 2ha)에 투입돼 일손 돕기에 나선 것 외에 지원

자들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특히 10일 보성에 거주하는 환자의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보성 지역 기피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파다하다.

보성 지역으로 인력을 파견해온 순천·여수지역 인력소개소 관계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보성 지역 지원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일당을 올려도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 이외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 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불안 심리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봉사단체들의 지원 활동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최근 한 달간 ‘농촌 일손돕기’ 사업도 참여자들(4254명)의

89.3%(3803명)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농협 직원들로 민간 지원인력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전남 지역 농가들 사이에서 일당도 치솟아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양파 수확철을 맞아 무안 지역은 평소 6~8만원이었던 포장·저장 인력의 경우 일당이 최근 12~15만원까지 치솟았다. 장마철에 접어들면 하루 일당이 평균 20만원 선으로 뛴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목포 인력소개소 관계자는 “농가에서 요청한 인원은 70명인데 40명밖에 보내지 못했다”면서 “농번기철 단기간에 필요한 인력이 많지만 충분하지 않아 일당 15만원, 17만원을 불러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민주당, 안이한 공천으로 패배’ 반론 보도

광주일보의 지난 5월 8일자 2면 ‘정동영의 추락과 천정배의 부활’ 제하 칼럼에서 “4·29 재·보선 조영택 후보 낙선 이유는 18대 총선 때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활동했던 김선욱에게 빚을 갚으려 ‘6·2지방선거’와 ‘10·27재보선’에 공천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해 믿음을 잃었다는 데 있다”고 보도했습다. 이에 대해 조 전 후보는 “2010년에 진행된 서구청장 선거와 관련, 6·2 동시선거 때는 경쟁자에게 결격사유가 생기면서 김선욱 후보가 단수후보가 되어 당헌에 따라 공천을 받게 되었고,

10·27 재보궐선거 때도 당헌에 따라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김 후보가 1위를 차지해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던 것”이라며 “당시 공천 과정에 지역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 전 후보는 “제18대 총선 당시 ‘선거대책본부’라는 기구를 운영한 바가 없었고 대신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었으나 위원장은 김선욱이 아닌 다른 분이였다”면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선욱에게 빚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공천 밀어주기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기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전산직(정규직)직원 채용**

글로벌 세상을 선도하는 동강대학교에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직원을 채용합니다.

초빙분야 및 인원

채용 직군	채용 분야	인원	자격조건	비고
기술	전산직	0명	- 전문학사학위 이상인자 - 프로그래밍(CS/웹) 개발 및 유지보수 2년 이상 경력자 - 개발 툴 파워워더 사용 가능자 - JAVA, PHP 개발 가능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DB 관련 자격증 취득자 우대

접수기간 2015. 6. 12(금) ~ 6. 17(수) 17:00까지

접수처 우리대학교 사무처 행정지원팀 ☎(062)520-2211~2

세부사항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kc.ac.kr) 직원채용공고 참조

**동강대학교**  
(500-71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